

개혁개방 시기 베트남의 농촌개혁이 산업화의 초기 조건에 미친 영향:

농업생산성, 토지분배, 가격정책의 영향 *

오 하 나**

요약

이 논문은 한 사회가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변모할 때 농업 이행이 산업화 경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관점에 따라, 베트남의 농촌개혁이 산업화의 초기 조건 형성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88년부터 1995년까지 베트남의 농업 생산성, 토지분배 정책, 가격정책을 분석해 베트남의 개혁 조치가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농촌에서의 자본축적 가능성을 높였는가를 탐색하였다. 첫째, 베트남에서 농촌개혁은 생산량을 증가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정도가 비약적이지는 않았다. 또한 국가 전체의 농업 생산량 증가에 비해 농가의 생산능력은 증가하지 않았다. 둘째, 가구 단위로 현저하게 균등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토지분배는 가족농의 생산능력을 제한하고 농촌에서의 불완전고용률을 높였다. 셋째, 가격정책은 농가의 교역조건을 개선하지 못했고 그 결과 개혁 초기 베트남의 농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0624).

이 글의 초고는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이 주최한 제3차 국제학술대회(2022. 6. 23.)에서 발표하였다. 토론을 통해 이 글의 분석에서 빠진 베트남 내 지역 간 사회경제적 편차, 개혁 이후 자본과 시장의 역할, 1995년 이후 시기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주신 창원대학교 정연식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상세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

**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hanhphuc@naver.com

은 농업을 통한 비약적인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초기 농촌개혁은 농가의 경제 상황 향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형성해 농민 경제의 성격을 변화시킬 정도의 농가소득 증대 요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베트남의 초기 농촌개혁은 농촌에서의 자본축적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농촌에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노동력을 형성했으며 이는 향후 베트남 산업화의 양상을 규정짓게 된다.

주제어: 베트남, 농촌개혁, 산업화, 농업 이행, 토지개혁

I. 문제 제기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자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공업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개혁개방 선언 후 첫 십 년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의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두 번째 십 년은 “공업화(công nghiệp hóa)와 현대화(hiện đại hóa)”를 국가발전의 주요 목표로 다지는 시기였다. 당대회마다 제시된 공업화를 위한 발전 전략은 당-국가가 2006년에 “농업 중심 국가에서 공업 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재차 선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외부적으로 볼 때 베트남이 공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강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당-국가가 농업과 농촌문제 역시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18년째 정책 문건 1호에서 농촌개혁을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역시 농촌문제를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베트남공산당은 2006년 제10차 공산당대회에서 ‘삼농(三農, tam nông: 농업, 농민, 농촌)’ 문제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2008년 8

월 5일 이른바 삼농 의결서로 불리는 “농업, 농민, 농촌에 관한 의결 (26-NQ/TW)”을 채택하면서 국가발전에 있어서 삼농의 전략적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공산당이 경제나 사회 정책에 있어 농촌문제를 핵심으로 다루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베트남 농촌에 관한 외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데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내부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농촌 정책이 국가의 공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농촌은 ‘문제’로 인식될 뿐 농민과 농업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도 존재한다. 공식적인 삼농 문제 선언, 그리고 2001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2010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새농촌 건설 국가 목표 프로그램(chương trình mục tiêu quốc gia xây dựng nông thôn mới)’ 등의 핵심 농촌 재구조화 정책은, 수사적으로는 농촌문제 해결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촌지역으로 공업화와 현대화 기획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공업화에서 농촌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한 사회가 농업 중심 사회에서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이행할 때 농촌의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클로저의 형태로 나타난 농업혁명을 통해 농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는 과정을 논한 마르크스(마르크스 1989)와 농촌 내부의 생산력 향상이 가져오는 자본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한 돕의 논의(Dobb 1963)에서 촉발된 논쟁, 농업과 농촌의 초기 변화 양상에 따라 산업사회로의 역사적 이행 경로들을 비교한 바이레스의 분석(Byres 1986) 등은 농촌에서의 자본축적이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보여주는 고전적 논의이다. 여기에 더해 탈사회주의 체제 이행 국가라는 조건으로 인해 베트남 사례는 집단생산체제 해체 직후 국가 정책에 따라 개인이 경제 주체로 등

장했다는 특성을 띤다. 즉, 베트남의 농촌개혁은 농업 문제(*agrarian question*)로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체제 이행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성격 역시 지니고 있다. 특히 개혁 당시 베트남은 경제에서 농업의존도가 높은 국가였다. 개혁 개시 시점 기준 러시아의 농업부문 고용 비중은 13%였는데 비해 베트남은 73%였고(권을 1999, 13), GDP 대비 산업부문별 기준으로 봐도 개혁 당시 베트남은 농업이 38%로, 폴란드 7%, 헝가리 8%에 비해 역시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이한우 2011, 40).

이 글은 베트남의 농촌개혁을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으로서 농업 이행(*agrarian transition*)으로 보고 시장경제 기반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베트남의 초기 조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농업 이행이란 “농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산업화의 가능성, 속도, 방식, 한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Byres 1995, 569), “농업 부문 내에서 작동하고 농업과 농촌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경제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Omoto and Scott 2016, 123). 또한 많은 논자가 지적하듯, 농업 이행의 문제는 부유한 선진국에서 거의 완료되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인 문제이다(De Koninck 2004, 285). 이때 ‘농업’은 영농방식(*farming*)이나 산업부문(*sector*)만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며 농업 이행의 문제는 농촌변동의 정치경제학, 즉,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변화와 계급 분화, 소농 경제, 토지개혁 등을 포괄한다(번스타인 2018).

농업 이행의 관점에서 베트남 농촌개혁을 본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능하다: 농촌개혁을 계기로 베트남의 농민 경제는 생계를 충족하는 생산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했는가? 다시 말해 베트남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출현이 농민 경제의 성격을 변화시켰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글은 베트남의 초기 농촌개혁을 농업 이행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자본주의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베트남의 초기 개혁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개혁개방 직후 베트남에서의 농촌개혁 정책이 농촌지역의 경제 발전에 충분할 정도로 축적의 힘을 가져왔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개혁 이후 베트남 산업화 과정의 토대를 이루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초기 조건을 이해하는 논의의 출발이며, 자본주의 산업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논의의 맥락에서 베트남 개혁의 특성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이 글이 다루는 시기인 개혁개방 직후는 대략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선언 이후 1995년까지의 기간이며, 특히 농가계약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소농이 재형성된 1988년 직후를 가리킨다. 개혁 초기를 1995년까지로 설정한 것은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개혁개방의 주요 변곡점을 10년 단위로 보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오하나 2022, 35~36). 이는 첫째, 5년마다 개최되는 베트남공산당 전국대표대회(Đại hội đại biểu toàn quốc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본문에서 당대회로 표기)를 기준으로 한다. 당대회는 베트남 당-국가가 정책과 제도를 아우르는 기조와 목표,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정체성의 이론적 기반을 결정하여 발표하는 기점이며 이를 토대로 5년 단위, 10년 단위의 사회·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다. 두 번째로, 베트남 개혁개방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도이머이 선언이 1986년, 아세안 가입 및 미국과의 수교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2006년으로, 대체로 10년 단위의 시기 구분이 베트남 개혁의 대내외적 변곡점과 유사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오하나 2022, 36). 이 글은 그중에서도 첫 번째 시기를 초기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 구분은 베트남의 개혁이 시기별로 단절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반대로, 초기 개혁의 영향이 이후 시기에도 지속된다는 관점을 내포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농촌 개념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의미한다. 농촌의 변화는 지리적 변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구성하는 인구와 노동, 그에 따른 삶의 변화를 포괄하며, 따라서 농촌은 생산공간이자 정책과 실천이 물질화되는 공간이다(우즈 2016, 15~25). 다만 베트남 사례를 다룰 때 ‘농촌’이 협의의 의미로 혼동될 여지가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농업, 농촌, 농민을 구분하며 이를 아우르는 의미로 ‘삼농’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삼농’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개념으로 ‘삼농’ 개념을 관통하면서 발생하는 인식론적, 정책적 논의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¹⁾ 이 글에서 ‘농촌개혁’을 언급할 때 농촌의 의미는 지리적 공간을 포함해 농업과 농민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동아시아 탈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농촌개혁을 뜻한다.

II. 체제이행국가의 농촌개혁 정책과 자본축적의 조건

이 절에서는 탈사회주의 국가의 농촌개혁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농촌 내 자본축적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체제전환국에서 나타난 농업 이행의 효과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는 주로 농업 생산량과 농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을 종속변수로 놓고 국가별 초기 조건과 개혁 정책 요인을 독립변수로 본다. 초기 조건과 개혁 정책에는 개혁 이전 농업에서의 생산 집단화 정도, 계획경제 강도, 노동집약도, 토지 소유 제도,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보조,

1) 일본과 한국에서도 삼농 개념이 있으나 특수한 맥락에서 사용되며 특히 한국의 삼농은 개념적으로 다른 의미를 띄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농촌을 가리키기 위한 용어로 사용하기 어렵다.

또는 세금 정책 등이 포함된다(Macours and Swinnen 2002). 그중에서도 탈사회주의 국가마다 농촌개혁의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농업생산방식의 변화, 사유화와 토지분배, 가격정책 요인이다.

사회주의 생산체제를 유지하던 사회에서 개혁의 첫 신호는 집단생산 방식을 해체하고 사적 자본의 활동을 허용하는 데 있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농업에 있어 생산과 분배의 주체를 국가에서 개인 또는 가족농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수단을 분배, 사유화하는 것이다. 중국의 포간도호(包幹到戶)와 베트남의 농가계약제와 같은 가구생산책임 제도 도입이 전자의 예라면, 옛 사회주의 국가에서 소유권 회복, 토지분배, 생산수단에 대한 바우처 제도 등 다양하게 나타난 농업 생산자본의 소유구조 재조정은 후자의 경우이다.

생산 및 분배의 개인화와 생산수단 재조정은 민간 영농과 개인농을 형성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개인농, 혹은 가족농의 (재)형성을 위한 정책 전환의 결과는 체제전환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러시아에서의 농촌개혁은 법률적·제도적으로 사적 소유를 보장하고 자영농 생산 조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자영농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성원용 2005; 진승권 2006, 76~81). 반면 물리적으로 공평한 토지분배를 강행한 중국, 베트남,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등은 개혁 이후 토지를 소유한 농민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이다(Macours and Swinnen 2002, 368~369).

집단생산체제에서 소농으로의 전환, 그리고 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토지분배라는 요인 외에도 농가의 교역조건 변화 역시 농촌개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린(Lin 1992)은 탈사회주의 개혁 초기 농업 생산량과 생산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유권 개혁, 농업 재구조화와 함께 가격 및 교역의 자유화를 꼽는다. 개

혁 이후 첫 5년간 중동부 유럽 국가와 소비에트연방의 교역조건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농업생산물에 대한 국정 가격이 상승했다(Macours and Swinnen 2002, 376). 이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개혁 이전 정책의 성격이 달랐던 데서 나타나는 차이인데, 개혁 전 동유럽과 소비에트연방의 경우에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보조해주는 데 초점이 있었지만,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과세 정책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개혁 이후 가격정책의 효과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Macours and Swinnen 2002, 384). 특히 중국에서는 농촌개혁을 통한 수매가격 정책의 변화가 농가 소득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의 농산물 가격정책이 향진 산업화의 촉매 역할을 했다(장경섭 1993; 1997).

기존 연구는 수매와 가격정책, 소유권 개혁, 집단에서 개인으로의 농업생산 방식 재구조화의 강도가 농업 이행의 방향을 결정한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주요 요인 중에서도 이 글은 베트남 농촌개혁에서 수매와 가격정책, 소유권 개혁 정책의 변화에 집중해 이 요인들이 충분한 축적의 힘을 발휘할 만큼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켰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개혁의 특징은 토지사용권 분배 정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덧붙여 기존 연구가 농촌개혁의 성패 여부, 즉, 종속변수로 다루었던 농업 생산성 요인을 재검토할 것이다.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 비교 연구는 농업 생산성 요인을 종속변수로 다루지만, 이 글은 농업 생산성 요인이 개혁 전후 농가소득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농업 생산량과 생산성 증대는 국가 경제 수준에서 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일 수 있지만 이행의 관점에서 볼 때 농촌에서의 자본축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방향성을 띠는 것은 개인, 혹은 가구경제가 핵심적인 경제주체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체 농업 생산성의 증가분보다

는 가구경제의 자본축적 정도를 검토해야 하는데, 농업 생산량의 증가가 곧 농가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 이후 중국 농민의 소득 증대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나듯 생산성 요인은 농촌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일 수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아닐 수 있다(장경섭 1993, 63).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이 글은 수매와 가격정책, 토지분배 정책의 특징과 함께 개혁 이후 농업 생산성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농촌개혁이 실제 농가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농촌개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초기 조건과 개혁 정책의 영향을 구분하는 기존 연구의 관점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한다. 예를 들어 중국 개혁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논의들은 초기 조건과 개혁 정책의 영향력을 둘러싼 논쟁을 보여준다. 한 편에는 중국의 개혁 정책의 성격, 즉, 개혁의 점진성을 주된 성공 요인으로 꼽는 논의가 있고(예컨대 McMillan and Naughton 1992; Roland and Verdier 1999), 다른 한 편에는 개혁 이전 중국의 초기 조건, 즉, 중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중시하는 연구가 있다(예컨대 de Melo and Gelb 1996; Sachs and Woo 1994). 개혁 전/후로 구분되는 두 범주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각각의 요인이 어느 정도 개혁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측정하는 연구도 있다(예컨대 Macours and Swinnen 2002).

이 글은 구조적 요인과 개혁 정책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수용하지만 두 가지 범주의 경계는 분명히 구분할 수 없으며 연속적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개혁 초기 적용된 정책의 방향이 기존의 구조를 반영함과 동시에 개혁의 초기 조건을 형성할 뿐 아니라 다시 개혁의 초기 조건을 구조화한다는 관점에서, 구조와 정책적 선택이 서로 다른 강도로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각기 구별되는 요인이 아니라 개혁의 연속적 과정에서 상호 구성되는 요인임을 전제한다.

III. 베트남 농촌개혁 정책의 효과

1945년 베트남 북부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농업에서의 집단생산 방식은 1975년 통일 이후 베트남 남부에까지 적용되었다. 노동교환조(tổ đổi công) 결성에서 시작해 초급합작사(hợp tác xã sản xuất nông nghiệp bậc thấp)를 거쳐 고급합작사(hợp tác xã sản xuất nông nghiệp bậc cao)로 발전하면서 농업생산은 생산수단의 공동 사용과 관리에서 공동소유와 노동에 따른 분배 체계로 전환되었다. 초급합작사는 토지와 자산에 대한 농가의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생산계획, 생산수단의 사용 및 관리를 합작사가 공동으로 하고 생산물은 농가가 기여한 노동과 자산에 따라 분배하는 체계였고, 고급합작사는 토지를 포함한 농업생산자본을 합작사의 공동소유로 전환하고 노동량에 의해서만 생산물을 분배하는 체계였다(이한우 2011, 68).²⁾

1979년 신경제정책, 1981년 생산물계약제 도입은 집단생산 방식을 일부 조정한 조치였다. 특히 1981년 1월 13일 제100호 지시(100-CT/TW) 발표로 도입된 생산물계약제는 기존의 노동점수제를 통한 분배를 폐지하고 토지 경작권을 각 단위나 개인에게 교부하되, 토지 규모에 따라 합작사별로 정해진 양의 생산물을 징구하고 그 외의 초과생산물에 대한 자율적 처분권을 인정하는 제도였다. 생산물계약제하에서 농가는 의무수매량과 합작사 기금, 농업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나머지 생산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처분을 할 수 있었고(Đặng Phong 2012, 224), 농경 작업 중 일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자율적 결정 권한

2) 베트남에서도 국영농장이 존재했으나 집단생산 체계의 발전에 따라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사회주의 혁명 이전 존재하던 자본가들의 대규모 농장이 국영농장으로 전환된 사례였다(랑글레 외 2017, 85). 국영농장은 산업작물 및 특수작물 생산을 목적으로 국가가 농업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전체 농민의 7% 정도가 국영농장 소속이었다(진승권 2006, 198). 대체로 베트남 합작사의 경우엔 중국의 인민공사나 러시아의 콜호스와 같은 대규모 집단농장 단계까지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0년대 후반 개혁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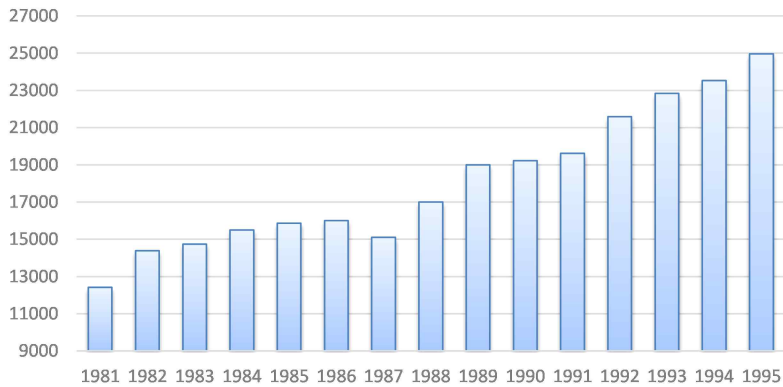
을 가졌다(ĐCSVN 2005, 25~35).

개인이 생산의 주체로 전면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1988년 농가계약제가 도입되면서부터였다. 농가계약제의 시작을 알린 1988년 4월 5일의 10호 의결(10-NQ/TW), “농업경제 관리 쇄신에 관한 의결(Nghị quyết về đổi mới quản lý kinh tế nông nghiệp)”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농가 단위를 토대로 하는 계약제를 실행하고 이를 위해 토지 사용 기간을 재배 작물 종류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15년 동안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농가는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스스로 자원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가용하는 것을 보장받게 되었다. 기존에 합작사를 통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사용권은 농가에 배분되었고 농가는 생산량 중 최소 40% 이상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농가계약제 도입으로 합작사 중심의 집단생산 체제는 해체되고 베트남 농업과 농촌에서는 재농민화가 나타나게 되었다(오하나 2022, 59). 이 절에서는 농가계약제 도입 이후 농업생산성, 토지분배 정책, 농업생산물에 대한 가격정책이 농가의 경제 상황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업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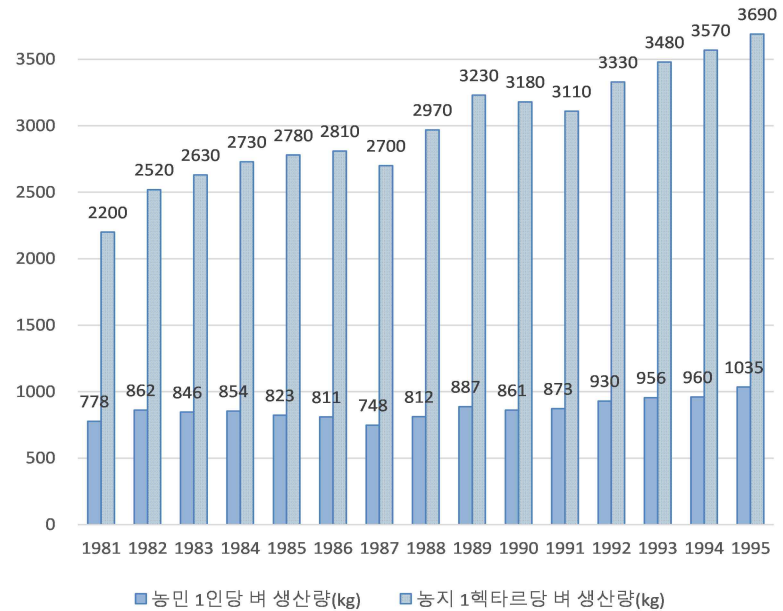
농가계약제 시행 직전 1987년 베트남의 주곡 총생산량은 1,570만 톤이었으나 농가계약제 도입 이후 1988년 1,780만 톤, 1989년 1,98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벼 생산량은 1987년 150만 톤에서 1988년 170만 톤, 1988년 19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그림 1). 쌀 생산 증가로 베트남은 1989년 처음으로 세계 3대 쌀 수출국의 지위를 달성하였다(TCTK 2006). 생산량뿐 아니라 생산성도 증가하여 단위면적당 벼 생산량은 1986년 헥타르 당 2,810킬로그램에서 1988년 2,970킬로그램, 1989년에는 3,230킬로그램으로 증가했다. 농업종사인구 1인당 벼 생산량 역시 1986년 811킬로그램에서 1989년 887킬로그램으로 증가했다(그림 2).

<그림 1> 벼 총생산량(천 톤), 1978~1995



출처: Trần Văn Thọ 2000, 247~248.

<그림 2> 농업인구당, 단위면적당 벼생산량, 1981~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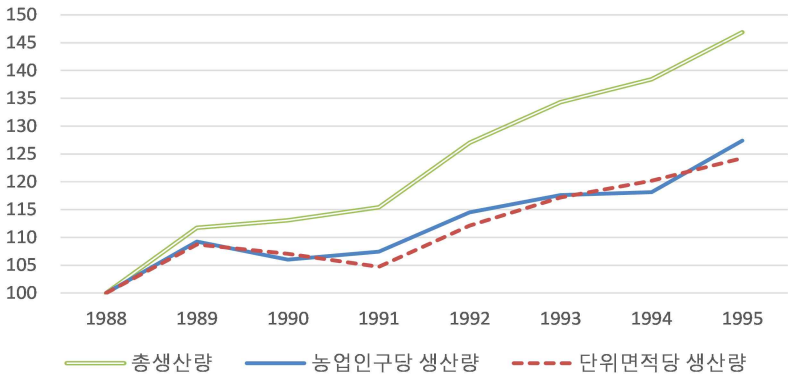
출처: Trần Văn Thọ 2000, 241~248; Nguyễn Văn Khánh 2004, 6에서 계산.

베트남의 농업 생산량과 생산성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가 개혁 직후였다는 사실 또한 베트남의 개혁이 농업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지지한다. <그림 1>은 벼 총생산량의 증가폭이 1988년 개혁 직후인 1989년에 그 이전보다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982년 생산량의 증가폭이 컸다는 것은 1981년에 있었던 부분적인 농업생산방식 개혁, 즉, ‘생산물계약제’ 역시 제한적인 개혁이나마 일시적으로 농업 생산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뜻한다. 1988년의 농촌개혁이 농가 단위 생산체제를 회복함으로써 농민의 생산 유인을 창출한 효과를 가졌던 것은 분명하며 이에 따라 농업노동인구당 생산량 또한 1988년과 1989년 사이에 증가하였다(그림 2).

농업 생산량의 긍정적 변화는 베트남의 개혁이 성공적임을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농민 1인당, 단위면적당 생산량에서의 변화는 총생산량에 비해 개혁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생산인구당,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그 증가폭이 극적으로 크지 않았으며 개혁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시기도 있었다(그림 2). 일례로 1990년과 1991년 벼의 총생산량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그림 1) 같은 시기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였고 노동인구당 생산량은 1989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농촌개혁 이전과 이후 모두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노동인구당 생산량의 변화가 비슷한 추세로 기록을 보이며 변동하는 양상은 한정된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988년 이후 1995년까지 총생산량과 농업인구당 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변화를 비교하면 그 증가폭의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1988년 각 생산량을 기준으로 이후 생산량을 환산했을 때 1995년 총생산량은 1988년에 비해 46.9% 증가한 반면, 같은 시기 농업인구당 생산량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각각 27.4%, 24.2%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림 3). 이는 농가의 생산능력이 높아졌던 것 외에 다른 요인이 국가 전체 생산

<그림 3> 벼 생산량 변화, 1988~1995 (1988년 생산량=100)



출처: Trần Văn Thọ 2000, 241~248; Nguyễn Văn Khánh 2004, 6에서 계산.

량을 증가시켰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 벼 총생산량의 증가는 첫째, 농업인구 증가에 기인했다. 1989년에서 1991년 사이 총인구는 9.8% 증가했지만, 농업종사 인구는 12.2% 증가해 총인구보다 3%p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Trần Văn Thọ 2000, 239~241). 즉, 생산성의 증가를 상회하는 총생산량의 증가는 농업인구의 증가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재배면적 증가의 요인이 있었다. 벼 재배면적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1.2%씩,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연평균 2.3%씩 증가했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베트남 전체에서 벼 재배면적은 102만 5천 헥타르가 더 늘어났다(TCTK 2006).

개혁 이후, 생산성을 상회하는 전체 생산량의 증가는 농가의 생산능력 증가 외에 농업인구와 재배면적 증가 요인의 영향이 컸음을 가리킨다. 즉, 개혁으로 농가가 농업생산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긴 했지만,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른 투자나 자원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에 훨씬 많이 의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가족농 단위에서는 순전히 농업 생산량 증가를 통해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을 창

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³⁾ 전체 농업 생산량의 증가가 농가의 자본 축적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2. 토지분배 정책

도이머이 이후 소유권 개혁에서 가계 경제 단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토지분배였다. 집단생산체제를 해체하고 농가가 생산의 공식적인 주체로 등장하면서 핵심 생산수단인 토지 역시 농가에 분배될 필요가 있었다. 베트남에서 추진된 토지분배는 사회주의 이전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식이나 생산수단에 대한 바우처 제공 등의 방식이 아닌 균등한 분배 방식이었다. 1987년 제정된 베트남 최초의 토지법(3-LCT/HĐNN8, 1987/12/29)은 1988년 농가계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1987년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 보장을 규정하여 합법적인 토지 사용자는 토지를 교환하거나 양도할 권리를 가지며 토지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결과물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제3조). 최초의 토지법이 토지사용권과 토지에서의 생산물에 대한 처분권을 보장함으로써 토지사용권을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토지사용권을 매매, 임대, 저당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경지에 대한 면적 제한이 있어 지역에 따라 농가당 2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의 경지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농지와 임지에 대해서는 미사용하거나 용지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3) 개혁 전후 농가 경제의 변화를 총생산량과 단위면적당 및 노동인구당 생산량을 통해 우회적으로 보는 데에는 무엇보다 1980년대 베트남 농가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조사 방식과 기준 단위에 있어서 개혁 이후와 개혁 이전의 상이성(개혁 이전에는 사회주의식 통계조사와 러시아 루블화 등을 사용하였다), 정보 수집에서 당과 국가의 지배적인 역할로 인한 편향성, 실제로 가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보조 경제에 대한 조사 누락, 측정 단위의 불균형, 불변 가격 적용의 미흡함, 행정구역의 잦은 개편 등의 이유로 시기별 데이터가 일관성과 신뢰도를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데 기인한다(랑글레 외 2017, 136-137).

역시 금지되었다(제5조).

토지 사용과 토지에서의 생산물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었음에도 매매, 임대, 저당을 금지한 조치로 인해 토지사용권은 불완전한 재산권일 수밖에 없었다. 법률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실제로 토지 사용권을 매매, 임대, 저당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랑글레 외 2017, 84), 실제 토지 이용과 법률 규정 사이에 격차가 나타났다. 불법적인 토지사용권 거래와 이에 따른 분쟁 사례가 늘면서 국가는 토지법 제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토지 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조치를 내놓았다. 1988년 8월 31일 발표된 “토지 관련 긴급 문제 해결에 관한 제47호 지시(Chi thị về việc giải quyết một số vấn đề cấp bách về ruộng đất)”는 촌락(xã, 社)의 평균 인구에 따라 토지를 분배한 것, 각 농가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비생산적으로 토지가 분배된 것을 문제로 꼽았다(ĐCSVN 2006, 361~373). 즉, 농가의 생산능력과 자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평등 원칙에 따라 토지분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유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토지 분쟁이 계속되자 토지 정책에 대한 수정이 시도되었다. 1991년 당대회에서는 특히 토지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져 토지 소유 주체를 국가로 할 것인가, 일부 개인소유를 인정할 것인가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으나(이한우 2011, 112), 결과적으로는 대의원 97%의 동의로 “토지의 전 인민 소유” 원칙이 채택되었다(Ngo Vinh Long 1993, 201). 토지 정책은 토지 소유권을 사유화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토지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1992년 개정 헌법은 다 성분 경제 체제(cơ cấu kinh tế nhiều thành phần) 개념을 통해 집단 소유와 개인 소유를 모두 인정하고(제15조, 신설), 토지에 대한 장기 사용권을 보장하며(제18조, 개정), 개인 경제(kinh tế cá thể)와 사적 자본주

의 경제(kinh tế tư bản tư nhân)를 인정(제21조, 신설)하였다(Hiến Pháp 1992).

1988년 농가계약제 도입 이후 농가를 농업생산 주체로 인정하면서 필요하게 된 실질적인 조치와 1987년 제정된 토지법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논쟁의 결과는 1993년 토지법 개정으로 실현되었다. 개정 토지법(24-L/CTN, 1993/07/14)은 여전히 토지의 전인민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토지사용권에 대한 교환, 양도, 임대, 상속, 저당의 권리와(제3조 제2항) 토지에 대한 가격체계 적용 규정을 마련했다(제12조). 무엇보다 장기간의 안정적인 토지 사용 보장을 위해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 단년생 작물과 수산양식용 토지에 대해서는 20년, 다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50년의 사용권을 보장했다(제20조). 토지분배는 대체로 빠르게 완료되어, 1995년 3월 기준 당시 농업식량산업부(Bộ Nông nghiệp và Công nghiệp thực phẩm)⁴⁾ 집계에 따르면 전체 토지 중 홍강 삼각주 지역의 경우 82.8%, 메콩 삼각주 지역의 경우 80.1% 등이 분배되어 전체 농민 중 80% 이상이 토지사용권을 분배받았다(Boothroyd and Pham Xuan Nam 2000, 119).⁵⁾

1988년 토지문제 해결에 관한 지시 제47호와 1991년 당대회의 논쟁이 지목했던 핵심 문제는 1987년 토지법이 토지를 분배하는 데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평등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이었다. 1993년 개정 토지법은 장기적인 토지사용권을 보장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토지사용권에 대한 매매, 임대, 저당을 허용함으로써 토지사용권 분배가 개인 간 거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분배에 있어 가구 단위 균

4) 1995년 10월, 임업부(Bộ Lâm nghiệp), 관개부(Bộ Thủy lợi)와 함께 현재의 농업농촌 발전부(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로 통합되었다.

5) 실제 토지분배 과정은 훨씬 복잡했으며, 공식적, 비공식적 관행에 의해 토지를 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주체가 다른 까닭에 분배되지 못한 상태의 토지도 있었다(Boothroyd and Pham Xuan Nam 2000, 119~120).

등 분배라는 원칙은 유지되었다.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탈집산화 개혁 과정에서 평등한 방식으로 토지를 분배했던 중국과 비교해서도 베트남은 균등 분배 원칙에 더 엄격했다. 이는 중국이 임대 지분 규모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과 달리 베트남은 가구 단위로 보유할 수 있는 경작지 면적의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Kerkvliet and Selden 1998, 52). 앞서도 언급했듯이 1987년 토지법은 농가당 사용할 수 있는 농경지를 지역에 따라 2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제한했다. 1993년 개정 토지법으로 농가가 보유할 수 있는 토지의 한도가 늘어났지만, 토지 보유 한도 규정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개정 토지법 제44조에 근거해 농업용 토지분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한 제64호 의정(64-CP, 1993/09/27)에 따르면 지역별로 단년생 작물 경작지의 경우 농가당 2~3헥타르, 다년생 작물 경작지의 경우 농가당 10~30헥타르를 분배받을 수 있었다(의정 제5조). 즉, 일률적인 균등 분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개정 토지법의 분배 원칙 역시 가구와 가구 내 구성원의 연령 및 수에 따른 균등 분배였다.

현저하게 균등한 분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토지개혁은 가족농에게 소규모로 분할된 토지를 골고루 분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토지 자원의 물리적 한계와 토지질과 위치 등을 고려한 분배 탓에 가족농이 분배 받은 농지는 소규모였고 그조차 여기저기 흩어져 여러 개로 나뉜 경우가 많았다. 1997년 아시아개발은행(ADB) 보고에 따르면 북중부와 산간 지역에서는 가구당 평균 토지 수가 11개였는데 최대 42개로 조각난 땅을 가진 사례도 있었다(Scott 2009, 183).⁶⁾ 토지가 소규모로 흩어져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국제 행위자들은 토지합병을 독려했다. 홍강 삼각주 지역 하남(Hà Nam)성에서는

6) 상대적으로 토질이 좋고 경작지가 넓은 남부지역의 경우 토지 파편화(fragmentation) 정도는 타지역에 비해 덜 한 편이었다.

토지합병을 통해 최대 보유 토지 수를 7개에서 2개로 줄이기도 했다 (Scott 2009, 183). 그러나 토지합병의 진전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개혁으로 인해 가족농은 더 이상 합작사 토지에 노동력을 제공할 필요 없이 가족 몫으로 사용권이 주어진 토지에 온전히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노동력을 투입할 토지의 규모와 형태는 제한적이었다.

국가 정책이 토지분배와 합병을 독려하고, 조각난 소규모의 토지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부 사람들은 토지사용권을 팔고 임금노동자가 되는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농가는 소규모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생계를 모색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빈곤한 가정일수록 토지 거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음식과 수입 획득을 위해 농지에 의지하고, 자식에게 물려줄 유일한 자산이 거주지를 포함한 토지이며, 다른 땅을 사거나 빌릴 자본이 없고, 토지가 없는 경우 신용에 있어 훨씬 불리했기 때문이다 (Smith et al 2007).

1990년대 초 메콩삼각주 지역을 조사한 결과는 토지사용권 매매뿐 아니라 임대 역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지역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임대로 내놓는 경우는 7%에 불과했다. 다만 임대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아 임대 사례의 절반이 저소득 가구였다. 저소득층 농민이 자신의 농지를 빌려주는 경우는 토지에 투자할 자산이 거의 없거나, 토지가 지나치게 작거나 너무 흩어져 있어 영농에 비효율적이거나, 또는 가족 내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임대로 토지를 내놓은 뒤 다른 일을 찾아 농촌을 떠나 근처 도시 등으로 향했다 (Scott 2009, 185).

결과적으로 가족농은 가능한 토지사용권을 유지한 상태로 생계 전략을 모색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소규모였고 조각나 있었다. 1993년 토지법 시행 직후 베트남 농민이 1인당 경작 가능한 토지

면적은 0.31헥타르에 불과했다(Boothroyd and Pham Xuan Nam 2000, 22). 1995년 베트남 통계총국에서 첫 번째로 시행한 농업·농촌 총조사 예비 결과에 따르면 농가당 보유한 토지의 평균 면적은 0.5헥타르였고 이 중 주거지 등을 제외한 농지는 평균 0.41헥타르였다.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경지의 부족 현상은 개혁 직후 개혁의 부작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후 30년 가까이 지난 최근까지 지속되면서 농가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가 되었다. 베트남 통계총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농가의 86% 이상이 2헥타르 미만의 경지 사용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에 가까운 농가는 농지가 없거나 0.5헥타르 미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과밀한 홍강 삼각주 지역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농가가 0.5헥타르 미만의 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TCTK 2018, 490~492).

토지개혁은 대부분의 농가에 토지사용권을 보장했지만 분배된 토지는 흩어진 형태의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노동의 한계생산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1995년 당시 농가당 보유한 농지 면적은 0.41헥타르였지만 농가당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4.8명이었고 그중에서 생산인구 연령에 속하는 인구는 2.5명이었다. 농촌지역의 경우 아동과 노인 역시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촌에서 경제활동에 실제로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 수는 통계조사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Boothroyd and Pham Xuan Nam 2000, 118~121).

노동력에 비해 부족한 토지는 농촌지역을 만성적인 불완전고용 상태로 만들었다. 더욱이 토지의 모양 또한 분배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경작에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길고 좁은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일부 농민은 토지사용권 매매를 통해 농지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상업적 영농으로 전환하여 생계의 기회를 넓힐 수 있었다(Akram-Lodhi 2005;

Dao The Tuan 1995). 그러나 대부분 농가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의 제한과 토지 파편화(land fragmentation)라는 조건으로 인해 가족 내 노동력을 충분히 농업에 활용할 수 없었고, 농업으로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자본을 축적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오하나 2022, 201).⁷⁾

3. 수매와 가격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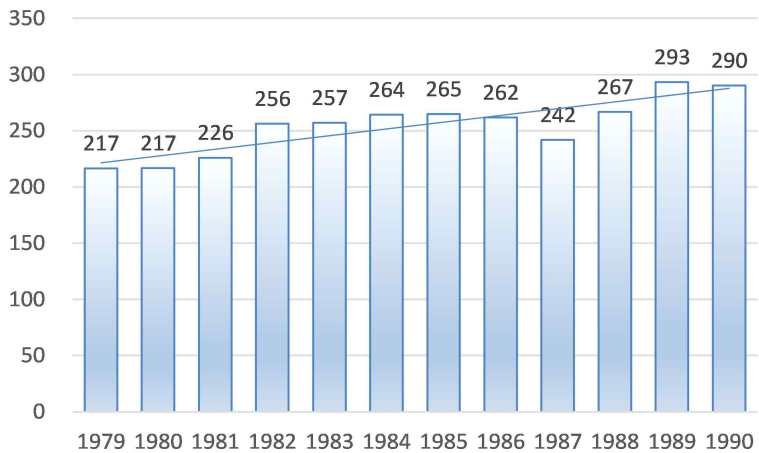
탈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정책 중에서 농촌의 소득 증진과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 생산량과 소유권 체계 변화뿐만이 아니다. 탈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에 관한 연구는 그중에서도 수매가격 정책의 전환이 농가소득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중국 사례의 경우 국가의 농산물 가격정책 개혁은 농가소득 향상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으며 향진산업화의 촉매 역할을 했다(장경섭 1993; 1997). 따라서 베트남의 농촌개혁에 있어서도 수매와 가격정책이 농촌 소득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수매와 가격체계는 베트남 당-국가 역시 개혁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이었다. 개혁 이전 특히 1987년경 베트남은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심각한 곡물 부족을 겪었는데, 여기에는 쌀을 포함한 주곡의 생산성 문제 이상으로 분배 정책의 영향이 컸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개혁이 농업 총생산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 이전에도 생산량 자체만을 고려할 때 인구 대비 식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인구 1인당 벼 생산량은 농업생산이 인구를 부양하는 정도를 확인해 주는데, 개혁 이전 인구 1인당 벼 생산량의 증가폭은 크지는 않았지만, 소폭 증가하며 200킬로그램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그림 4). 이는 배

7) 도구변수추정법을 사용해 베트남을 사례로 토지의 파편화 정도와 농가소득의 관계를 분석한 최근 연구 결과는, 베트남의 높은 토지 파편화 정도가 여전히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Tuyen Quang Tran and Huong Van Vu 2019).

<그림 4> 인구 1인당 벼 생산량(kg), 1979~1990



출처: Trần Văn Thọ 2000, 239~248의 수치를 이용해 계산.

급경제 시기 1인당 월 쌀 배급량을 평균 15킬로그램으로 잡았을 때 부족한 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⁸⁾ 물론 여기에는 수출량과 종자로 보관해야 하는 양, 불가피한 손실로 인한 공제가 고려되지 않았지만(랑글레 외 2017, 206) 반대로 노인과 유아 등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을 고려한다면 1인당 생산량은 인구수 대비 단순 산술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인구 대비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많은 농민은 식량 부족을 경험하고 국가의 배급 역시 적정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하향 조정되거나 쌀이 아닌 곡물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다. 여기에는 생산량의 증가폭이 크지 않았던 이유 외에도 국가의 수매방식과 곡물 가격정책으로 인한 분배 문제의 영향 역시 컸다. 1987년 작황 위기를 겪으면서 당시 장관평의회 부주석 보반끼엣(Võ Văn Kiệt)은 농업생산물에 대한 가격과 수매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Vo Nhan Tri 1990, 195).

8) 배급경제 시기 1인당 쌀 배급량 기준은 매월 간부 13킬로그램, 중노동자 13~19킬로그램, 군인 21킬로그램, 1세 유아 3킬로그램, 농부 11~15킬로그램 등이었다.

분배 체계의 문제로 인한 곡물 부족은 1인당 곡물 소비량을 큰 폭으로 떨어뜨렸다. 1인당 곡물 소비량은 1985년 300킬로그램 이상이었지만 1987년에는 280킬로그램까지 떨어졌다. 남부지역에 비해 다모작이 불리한 기후 환경에 있었던 북부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1987년에 곡물 부족분이 적어도 50만 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CIA 1988, 2).

개혁 이전 농산물의 일부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비농업인구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수매했다(White 1985, 99; 이한우 2011, 75). 1958년에서 1960년까지 농산물 수매제도가 시작된 초기에는 국정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았다(White 1985, 102). 그러나 시장 가격은 곧 국정 가격을 추월해 농민이 정부 수매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가는 1961년 5월 수매 정책에 관한 성명을 통해 합작사가 할당량보다 초과 생산한 경우 초과 생산분을 국가가 국정 가격보다 10~20% 높은 가격으로 수매한다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국가 수매 비율을 높이려고 했다.⁹⁾ 1962년 중반에는 정부가 수매 비율을 늘리고 농민의 임의 소비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가격정책이 도입되었다(Vickerman 1986, 185). 몇 가지 작물의 국정 가격을 상향 조정했지만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 사이의 격차, 농산품과 공산품 사이의 협상가격차, 이로 인한 농민의 정부 수매 회피 등으로 인해 정부 수매 비율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Utting 1992, 89).

1975년 통일 이후에도 농산물에 대한 국정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Phạm Văn Chiên 2003, 157). 그러나 시장 가격의 상승 폭은 더욱 가팔라져, 1977년에는 전년 대비 38%, 1978년에는 85.1%, 1979년에는 148.3%, 1980년에는 260%가 상승했다(Phạm Văn Chiên 2003, 158~159). 점차 국정 가격은 시장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정부 수매보다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시장 가격

9) 1965년 기준, 의무 수매 비율은 토지질과 작물 종류에 따라 생산량의 12~24%였으며 전국평균 17%였다(White 1985, 100).

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선호했다. 중앙 정부 안에서도 국정가격위원회회의 농산품 가격 측정이 현실적인 생산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은 당시 총비서의 경제보좌관이었던 쩌프엉(Trần Phương) 교수로, 그는 “빼앗듯이 사고 베풀듯이 판다(mua như cướp, bán như cho)”는 표현으로 정부의 수매 정책을 비판했다(Đặng Phong 2009, 235).

농가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총생산량이나 인구당 주곡 생산량과 같은 생산성 요인도 있었지만,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식과 가격의 영향 역시 크다. 개혁으로 가격을 자유화하고 곡물의 수매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맞추려는 과정은 농가의 소득 증대에 중요한 요인이다. 베트남 당-국가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베트남에서 두 번의 공식적 농업생산 방식 개혁이 일어난 1981년과 1988년에도 주요 해결 과제는 농가의 교역조건(terms-of-trade) 문제였다(Fforde and de Vylder 1996, 133~139).

농가 생산에서 판매와 구입을 통해 측정하는 농가교역지수는 농가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개혁 전후 시기 베트남의 농가 교역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불분명하지만, 포드와 드빌더가 일부 자료를 활용해 측정한 농가 교역조건은 <표 1>과 같다(Fforde and de Vylder 1996, 210). <표 1>은 소매가격으로 측정한 소비재와 농산물 가격, 그리고 농업생산수단의 가격을 보여주는데, 그 결과는 1980/85년과 1988/89년 사이에 농가 교역조건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Fforde and de Vylder 1996, 183).

<표 1> 1980년대 농가 교역조건

	1980년	1985년	1988년	1989년
농가 교역조건(정부조달)				
가) 농업투입재 가격 대비	1	0.9	1.1	-
나) 총소매 가격 대비	1	0.9	1.0	0.8
정부조달 가격지수	1	13.2	1605	2353
정부조달 주곡 가격지수	1	12.7	1918	2148
농업생산수단 가격지수	1	10.9	1471	-
총소매 가격지수	1	14.2	1580	2782

출처: Fforde and de Vylder 1996, 210.

농가 교역조건에 관한 일부 자료만으로 농민이 실제로 어떠한 교역 조건에 놓여있었는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표 1>에서 드러나는 교역조건은 198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약간 개선되거나(1988년) 오히려 악화하였음을 보여준다(1985년과 1989년). 생산비 대비 판매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특히 총소비대비 판매비는 1989년에 더 악화하였다. 농업생산방식에 대한 부분적 개혁이 시도된 ‘생산물계약제’ 도입이 1981년, 도이며이 선언이 1986년, 농업에서 집단생산방식을 해체한 ‘농가계약제’ 도입이 1988년임을 고려할 때,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가 교역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가 교역조건이 개혁 이후 농업을 통한 농가의 경제 상황 개선 효과가 미미했음을 보여준다면 농가소득은 더 직접적으로 개혁 이후 농가의 경제 상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농촌개혁이 가져온 농가의 소득 증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개혁 전과 후를 비교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합작사 중심의 생산 및 분배 체제를 유지하던 개혁 이전 시기에는 농가의 소득은 공식적으로 배급량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합작사를 통한 배급량이 아닌 비공식

적인 소득이나 합작사가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지역의 실질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¹⁰⁾

일부 연구는 중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혁 이후 베트남의 농가소득 증가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중국에서는 1978년 농촌개혁 이후 1985년까지 농촌의 1인당 순소득이 매년 20% 상승했지만, 베트남 농촌지역 1인당 순소득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¹¹⁾ 매년 2.7% 상승한 데 그쳐 중국 농가보다 베트남 농가의 소득 증가 추세가 매우 완만했음을 보여준다(O'Connor 1998, 15). 개혁 이후 농업 생산량 증가에 있어서 베트남의 성과가 중국에 비해 낮지 않았음에도(O'Connor 1998, 15~16) 농가소득의 증가폭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베트남의 농민이 중국과 달리 수매방식과 가격정책 개혁으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지 못했음을 또한 지지한다.

교역조건과 농가소득에 관한 자료는 베트남에서 농촌개혁이 농가소득 향상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확인해준다. 즉, 베트남에서 농업 생산방식, 수매, 가격정책을 개혁했음에도 개혁의 효과가 농민의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시키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는 향진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정도로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중국과 달리 베트남의 농가는 개혁 이후에도 시장경제에 적합한 소득 향상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있었음을 보여준다.

10) 논자에 따라 우회적인 방식으로 1인당 소득을 추정하는데, 예컨대 비커만은 1967년 농가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7인 가족이 배급받은 벼의 양을 당시 벼 가격으로 환산한 결과에 기타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해, 1인당 소득이 1년에 147동이었다고 계산한다(Vickerman 1986, 289).

11) 동일한 비교를 위해서는 비교 시점이 베트남 농촌개혁이 시작된 1988년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저자가 사용한 베트남 통계총국 자료에는 1991년 이전 농촌지역 1인당 소득에 관한 자료가 없다.

IV. 결론

자본주의 이행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산업화 이론이 지적하듯 한 사회가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변모할 때 농업과 농촌의 변화는 산업화 경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농업 중심 사회가 공업 중심 사회로 변모하는 산업화 과정, 그리고 공산주의적 집단생산 체제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변모하는 과정 모두를 포괄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베트남의 개혁개방에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책은 향후 베트남의 산업화 과정을 결정짓는 요인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혁 과제 중에서도 농촌개혁에 집중해 베트남의 개혁 조치가 농촌에서의 자본축적 가능성을 높였는가를 탐색하였다.

베트남 당-국가는 도이머이를 선언하면서부터 이전 시기 중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 농업을 경시했던 점을 자기비판하며 농업의 선도적 위치(vị trí hàng đầu)를 강조했다. 농업생산이 증가하고 쌀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의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 역시 초기 개혁이 가져온 성과 중 하나이다. 베트남이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사례로 언급되는 데에는 농업 생산량과 수출량의 증가에 힘입은 거시경제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농촌개혁은 농가소득을 증가시켜 농촌에서의 자본축적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농가의 소득 상승을 기반으로 농촌 기업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먼저 베트남 개혁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농업 생산량 증가에 관한 검토를 통해, 농가를 생산 단위로 인정하는 개혁 조치 이후 총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농가 수준에서 그 증가 정도가 비약적이지는 않음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농가 단위의 소득 증대 효과를 추정할

때,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노동인구당 생산량의 증가가 총생산량의 증가 정도에 미치지 못했음은 개혁 이후 베트남에서 국가 전체의 농업 생산량은 증가했음에도 농가의 생산능력이 높아지지는 않았음을 가리킨다. 이는 균등 배분 원칙을 따른 토지분배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토지법 개정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실질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토지 정책이 전개되었음에도 가구 단위로 현저하게 균등하게 분배된 토지는 그 면적과 형태의 한계로 인해 가족농의 생산능력을 제한하고 농촌에서의 불완전고용률을 높였다. 구매와 가격정책의 전환 역시 베트남에서는 농가의 교역조건을 개선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개혁 초기 베트남의 농민은 농업을 통한 비약적인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없었다.

개혁 초기 농업생산성, 토지분배, 가격정책을 분석한 결과가 보여주는 베트남 농촌개혁의 특징은 그것이 농가의 경제 상황을 제한하는 조건을 조성했고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데 있다. 서두에서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베트남의 초기 농촌개혁은 농민 경제의 성격을 변화시킬 정도의 농가소득 증대 요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농업생산성과 가격정책은 실제로 농가의 생산능력과 교역조건을 개선하지 못했다. 특히 토지분배 정책은 농민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고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구조적인 조건이 되었다(오하나 2022, 210).

개혁 초기 전개된 정책의 방향은 한편으로는 베트남 경제의 기존 구조에서 기인한다. 1986년 개혁이 시작된 시기, 베트남은 경제에서 농업의존도가 높은 반면 제조업 생산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권율 1999). 이러한 조건은 개혁 초기 농업 생산량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발전 전략을 도출했다. 동시에 제조업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 정책이 전개되었다. 농민의 가구 경제 관점에서는 집단생산 체

제에서도 지속되던 가족 단위 생계 방식이 존재하고 있었다(오하나 2022, 82). 다른 한편, 초기 개혁 정책은 또한 향후 개혁 전개의 조건을 형성했다. 농업생산물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은 실제로 농업수출량을 증가시켰지만, 농촌에서의 자본축적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가구 단위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균등하게 이루어진 토지사용권 분배는 농가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기는 했지만 농업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

개혁의 초기 조건과 개혁 직후 정책적 선택은 이후 베트남의 산업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조건을 강화했다. 초기 개혁은 농촌에서 자본축적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농촌에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노동력을 형성했다. 가족 구성원의 수는 농가가 보유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동시에 토지의 면적과 형태로 인한 제한은 한계생산을 감소시키고 불완전고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이전의 집단생산체제가 해결하던 불완전고용 구조를, 개혁 이후에는 이제 가족농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농업을 통한 소득 증대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가족의 잉여 노동력은 농가가 농업 외 소득을 추구하는 자원이 되었다(오하나 2022, 86). 농민의 이러한 생계구조는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해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 성장을 추진하려는 국가의 산업화 전략과 조응하며 저임금 노동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농업 이행을 통해 형성되는 산업화의 또 다른 초기 조건으로서, 농민의 노동자로의 전환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95년 이후 본격화되고 2006년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의 영향 또한 후발 산업화 주자인 베트남의 농촌 상황을 더욱 빠르게 변화시켰다.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서 세계 경제 체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에 따르면, 세계화 시대에 농업 이행기를 거치고 있는 사회의 경우 농업 이행

과 산업화의 관계는 선진국에서의 경험과 다르게 전개된다(Bernstein 1996). 대외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은 자본의 초국적 이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의 농업 이행과 산업화 과정에 관해서는 외국인 자본의 역할 또한 빼놓고 논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논의는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

투 고 일: 2022년 06월 29일

심 사 완 료 일: 2022년 08월 18일

게 재 확 정 일: 2022년 08월 18일

참고문헌

- 권율. 1999.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구조전환에 관한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8: 7-45.
- 랑글레, 필립·파익타인탐. 윤대영 역. 2017(2001). 『베트남 현대사: 통일에
서 신공산주의로, 1975-2001』. 진인진.
- 마르크스, 칼. 1989(1867). 『자본론-정치경제학 비판 I(하)』. 김수행 역. 비
봉출판사.
- 번스타인, 헨리. 엄은희·권오범 역. 2018(2009). 『농업 변동의 계급 동학』.
따비.
- 성원용. 2005. “체제전환국의 농업 탈집산화 논의에 대한 재고: 러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12(2): 159-213.
- 오하나. 2022. “베트남의 농촌개혁과 공업화 전개 과정: 농민의 가구경제
다변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우즈, 마이클. 박경철·허남혁 외 역. 2016(2011). 『농촌: 지리학의 눈으로
보는 농촌의 삶, 장소 그리고 지속가능성』. 따비.
- 이한우. 2011.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 장경섭 편. 1993. 『현대중국사회의 이해』. 사회문화연구소.
- 장경섭. 1997. “중국의 제2산업혁명: 국가-농민사회 관계를 통해 본 향
진산업화.” 『지역연구』 6(1): 23-47.
- 진승권. 2006. 『사회주의, 탈사회주의, 그리고 농업: 동유럽과 아시아에서
의 농업의 탈집단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Akram-Lodhi, A. Haroon. “Vietnam’s Agriculture: Processes of Rich
Peasant Accumulation and Mechanisms of Social Differentiation.”
Journal of Agrarian Change 5(1): 73-116.
- Bernstein, Henry. 1996. “Agrarian Questions Then and Now.” *Journal of*

Peasant Studies 24(1/2): 22-59.

Boothroyd, Peter, and Pham Xuan Nam. 2000. *Socioeconomic Renovation in Viet Nam: The Origin, Evolution, and Impact of Doi Moi*.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Byres, T. J. 1986. "The Agrarian Question, Forms of Capitalist Agrarian Transition and the State: An Essay with Reference to Asia." *Social Scientist* 14(11/12): 3-67.

Byres, T. J. 1995. "Political Economy, the Agrarian Question, and the Comparative Method." *Journal of Peasant Studies* 22(4): 507-513.

CIA. 1988. "Vietnam: Struggling with Food Shortages." CIA report.

Đặng Phong. 2009. *Phá rào" trong Kinh tế vào Đêm trước Đổi mới*. Hà Nội: Tri Thức.

Đặng Phong. 2012. *Tư duy Kinh tế Việt Nam 1975-1989*. Hà Nội: Tri Thức.

Dao The Tuan. 1995. "The Peasant Household Economy and Social Change." in Kerkvliet and Porter(1995). pp. 139-164.

ĐCSVN(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2005. *Văn kiện Đảng Toàn tập: Tập 42*. Hà Nội: Chính trị Quốc gia.

ĐCSVN. 2006. *Văn kiện Đảng Toàn tập: Tập 49*. Hà Nội: Chính trị Quốc gia.

De Koninck, Rodolphe. 2004. "The Challenges of the Agrarian Transition in Southeast Asia." *Labour, Capital and Society* 37: 285-288.

De Melo, Martha and Alan Gelb. 1996. "A Comparative Analysis of Twenty-eight Transition Economies in Europe and Asia." *Post-Soviet Geography and Economics* 37: 265-285.

Dobb, Maurice. 1963(1946).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Fforde, Adam and Stefan de Vylder. 1996. *From Plan to Market: The Economic Transition in Vietnam*. Oxford: Westview Press.

Hiến Pháp. 1992.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Chủ nghĩa xã hội Việt Nam

- năm 1992.” <https://thuvienphapluat.vn/van-ban/Bo-may-hanh-chinh/Hien-phap-1992-cong-hoa-xa-hoi-chu-nghia-Viet-nam-38238.aspx> (검색일: 2022.6.2.).
- Kerkvliet, Benedict J.T. and Doug J. Porter, ed. 1995. *Vietnam's Rural Transformation*. Oxford: Westview Press.
- Kerkvliet, Benedict J. T. and Mark Selden. 1998. “Agrarian Transformation in China and Vietnam.” *The China Journal* 40: 37-58.
- Lin, Justin Y. 1992. “Rural Reforms and Agricultural Growth in China.” *American Economic Review* 82: 34-51.
- Macours, Karen and Johan F Swinnen. M. 2002. “Patterns of Agrarian Transi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50(2): 365-394.
- McMillan, John and Barry Naughton. 1992. “How to Reform a Planned Economy: Lessons from China.”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8: 130-143.
- Ngo Vinh Long. 1993. “Reform and Rural Development: Impact on Class, Sectoral, and Regional Inequalities.” Turley and Selden(1993). pp. 165-208.
- Nguyễn Văn Khánh. 2004. “Hai mươi năm Đổi mới Quan hệ Ruộng đất và Kinh tế Nông nghiệp Việt Nam: Thành tựu và Vấn đề.” *Nghiên cứu Lịch sử* 337: 3-12.
- O'Connor, David. 1998. “Rural Industrial Development in Viet Nam and China: A Study in Contrasts.” OECD Development Centre Working paper 140.
- Omoto, Reiko and Steffanie Scott. 2016. “Multifunctionality and Agrarian Transition in Alternative Agro-food Production in the Global South: The Case of Organic Shrimp Certification in the Mekong Delta, Vietnam.” *Asia Pacific Viewpoint* 57(1):

121-137.

- Phạm Văn Chiến. 2003. *Lịch sử Kinh tế Việt Nam*. Hà Nội: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Roland, Gerard and Thierry Verdier. 1999. "Transition and the Output Fall." *Economics of Transition* 7: 1-28.
- Sachs, Jeffrey and Wing-Thye Woo. 1994. "Structural Factors in the Economic Reforms of China,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Economic Policy* 18: 101-145.
- Scott, Steffanie. 2009. "Agrarian Transformations in Vietnam: Land Reform, Markets and Poverty." Spoor(2009). pp.175-199.
- Smith, W., I. Williamson, A. Burns, Tran Kim Chung, Nguyen Thi Vinh Ha and Hoang Xuan Quyen. 2007. "The Impact of Land Market Processes on the Poor in Rural Vietnam." *Survey Review* 39(303): 3-20.
- Spoor, Max, ed. 2009. *The Political Economy of Rural Livelihoods in Transition Economies: Land, Peasants and Rural Poverty in Transition*. Routledge.
- TCTK(Tổng cục Thống kê). 2006. "Việt Nam 20 năm Đổi Mới và Phát triển 1986-2005." <https://www.gso.gov.vn/default.aspx?tabid=418&ItemID=4326>(검색일: 2022.3.30).
- TCTK. 2018. *Kết quả Tổng điều tra Nông thôn, Nông nghiệp và Thủy sản Việt năm 2016*. Hà Nội: Thống kê.
- Trần Văn Thọ. 2000. *Kinh tế Việt Nam, 1955-2000*. Hà Nội: Thống kê.
- Turley, Willam S. and Mark Selden. ed. 1993. *Reinventing Vietnamese Socialism: Doi Moi in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Tuyen Quang Tran, and Huong Van Vu. 2019. "Land Fragmentation

- and Household Income: First Evidence from Rural Vietnam.” *Land Use Policy* 89: 1-8.
- Utting, Peter. 1992. *Economic Reform and Third-World Socialism: A Political Economy of Food Policy in Post-Revolutionary Societi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Vickerman, Andrew. 1986. *The Fate of the Peasantry: Premature Transition to Socialism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New Haven: Yale University Southeast Asia Studies.
- Vo Nhan Tri. 1990.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White, Christine. 1985. “Agricultural Planning, Pricing Policy and Co-operatives in Vietnam.” *World Development* 13(1): 97-114.
- 24-L/CTN(1993/07/14). “Luật Đất đai.” <https://thuvienphapluat.vn/van-ban/Bat-dong-san/Luat-Dat-dai-1993-24-L-CTN-38481.aspx>(검색일: 2022.6.2.).
- 3-LCT/HĐNN8(1987/12/29). “Luật Đất đai.” <https://thuvienphapluat.vn/van-ban/Bat-dong-san/Luat-Dat-dai-1987-3-LCT-HDNN8-37467.aspx> (검색일: 2022.5.23.).
- 64-CP(1993/09/27). “Nghị định về việc ban hành bản quy định về việc giao đất nông nghiệp cho hộ gia đình, cá nhân sử dụng ổn định lâu dài vào mục đích sản xuất nông nghiệp.” <https://thuvienphapluat.vn/van-ban/Bat-dong-san/Nghi-dinh-64-CP-ban-Quy-dinh-ve-viec-giao-dat-nong-nghiep-cho-ho-gia-dinh-ca-nhan-su-dung-on-dinh-lau-dai-vao-muc-dich-san-xuat-nong-nghiep-38630.aspx>(검색일: 2022.6.15.).

Abstract

The Effect of Rural Reform on the Early Conditions of Industrialization in Vietnam:

Agricultural Productivity, Land Distribution, and Price Policy

OH, Ha Na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rural reform on the formation of early conditions for industrialization in Vietnam under the view that agrarian transition is a critical factor in determining the industrialization path when a society transforms into a capitalist industrial society. This article analyzes agriculture productivity, land distribution policy, and price policies from 1988 to 1995 in Vietnam to explore whether Vietnam's reform increased rural households' income and created the possibility of capital accumulation in rural areas. First, it is clear that agricultural production in Vietnam has increased due to the rural reform, but it was not dramatic. Above all, the production capacity of rural households did not increase compared to the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on across the country. Second, the land distribution policy was in a way that was remarkably equal for each household. As a result, land distribution limited the production capacity of rural

households and increased the rate of incomplete employment in rural areas. Third, the price policy did not improve the terms-of-trade of rural households, and rural families could not experience a rapid increase in income through agriculture in the early stages of reform. In conclusion, the early rural reform in Vietnam did not increase rural families' income enough to change the rural economy because reform policies restricted the improvement of rural households' economy. Vietnam's early reforms did not achieve capital accumulation in agriculture but a labor force with land use rights in rural areas, which would define the pattern of industrialization in Vietnam henceforth.

Keywords: Vietnam, Rural Reform, Industrialization, Agrarian Transition, Land Reform

